

사이유(彩釉) 자기

사이유는 도예가 3 대째 도쿠다 야소키치(1933~2009)가 고안한 현대 유약 기법으로, 선명한 색상의 유약이 녹아내리며 만들어내는 섬세한 그라데이션이 특징입니다. 1997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

3 대째 도쿠다 야소키치는 이시카와현 고마쓰시의 구타니야키 명가에서 태어났습니다. 조부인 제 1 대 도쿠다 야소키치(1873~1956)는 뛰어난 유약 사용 기술과 17 세기 고쿠타니의 유약을 재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. 독창적인 색채도 다수 만들어냈습니다. 3 대째 야소키치 역시 유약을 다루는 데 뛰어났으며, 22 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미술전람회에서 첫 입선한 바 있습니다.

3 대째 야소키치는 특히 고쿠타니의 ‘아오데’라고 불리는 양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오데는 유약에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고, 진한 녹색, 노란색, 자주색, 남색 등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. 3 대째 야소키치가 아오데 유약으로 현대적인 미를 표현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던 중에 우연히 조성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졌고, 그 결과 유약이 자기 표면에서 서로 녹아 섞이며, 오로라나 초신성에도 비유되는 희미하게 번진 색 스펙트럼이 만들어졌습니다. 도쿠다 야소키치는 이 유동적이고 환상적인 그라데이션을 ‘사이유’라고 이름지었습니다.

사이유는 구타니야키의 원점인 전통적인 유약 배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전통에서 벗어난 대담한 형태와 모티프로 독창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.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3 대째 야소키치의 현대적인 감성과 참신하고 폭넓은 표현이 돋보이는 사이유 작품 9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.

사이유는 야소키치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, 1997 년에 새로운 기법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 야소키치 본인도 같은 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아 사이유의 보존과 전파에 힘썼습니다. 야소키치는 2009 년에 세상을 떠났지만, 사이유 기술을 이어받은 그의 장녀가 4 대째 야소키치(1961~)를 계승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.